

이 마음의 도리, 한마음을 진짜로 믿고 들어가야

25면에서 계속

명으로나 과학으로나 의학으로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전이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여러분이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등잔 밑이 어둡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화두 수행은 이미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계발이 되고 발전이 돼서 마음이 넓어진 데다가 과학적인 문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편은 벌써 과거의 것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은 건너뛰어야 이거지요. 알고 있는 건 건너뛰어라! 하나와 하나가 딱 맞아서 돌아가야 곡식이라도 갈 수 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면 어떻게 물질이 갈려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신력으로는 벌써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수행을 옛날 그대로 하게 되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게 된다 이거죠. 이거는 너무 크고 이거는 너무 작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알고 있죠. 지금 수행하는 시점에서 벌써 집착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뭣고, 이놈이 뭣고!' 하고 있으니 그것이 여러분한테 해당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말한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도, 벌써 백 년이 흘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시공이 없이 돌아가서 빛보다 더 빠른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길잡이도 어리석어서 뛰어넘을 줄 모르는데다가 그런 길잡이에 팔려 가는 사람들도 모두 장님이 고 귀머거리라면 어떻게 앞으로, 정말이지 마음의 인등을 켜고 밤과 낮이 없이 밝게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남들까지 이끌어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 몸뚱이와 자기 가정, 자기 조상은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을 공부해 가지고도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을 건질 수가 없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걸 건진다 안 건진다를 떠나서 자기란 말입니다. 우선 요 몸만 생각한다면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기와 돌이 아닌 까닭에 자기 생각 하나에 의해 수십억 마리의 자기 중생들이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데도 자기가 아차 잘못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차 잘못 생각하기 이

전에 또 바깥으로 미신처럼 찾겠습니까? 여러분이 바깥으로 찾는다면 일시적인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공덕은 이룰 수 없죠. 또 한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바깥으로 찾아서 그 의식 자체, 이미지에 단편적이고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것이 너무 쌓여서 뭉쳐지면 거기에선 악의 존재밖엔 안 나옵니다. 악의 존재에 따라 수억 마리로 번지게 됩니다. 이게 정말이지 무서운 도리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든 잘하든, 벌을 받든 안 받든 물질 하나에만 한정되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가 헤아릴 수 없이 이 세상을 다 덮을 수도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다 좁혀줄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 이 자체가 그렇게도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도 묘한 거고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 없는 그 마음이 그렇게 악의 존재를 풀 수도 있고 선의 존재를 풀 수도 있습니다. 무한의 그 진리가 그렇게 돼 있기

런데 만 배를 해도 일 배도 안되는 사람이 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일 배를 해도 백팔 배가 되고 삼 배를 해도 삼만 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 일 배도 없으니 어디 가서 찾느냐? 일 배는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찾을 때 바로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일 배는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할 때에 '모두가 돌이 아니기 때문에 일 배 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너무 가까워서. 여러분이 저기 법당에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가 돌이 되죠. 꼭 법당에 들어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내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전에 어느 스님께서 화장실에 갈 때는 가사 장삼은 물론이거니와 두루마기를 벗고 들어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따르면 서로 나는 오지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죠.

빌려 가지고 나에게 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누가 나를 때렸다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때리게 했으니, 그 사람을 괜히 수고하게 만들었으니 더욱 미안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바가지지를 굶더라도 '아하, 감사하구나.' 또 뭐라고 야단을 치더라도 '아유, 감사하구나. 이것이 바로 저 몸을 빌려서 수고롭게 하니 내 이거 미안해서 견딜 수 있나. 참, 주인공이 나를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고가 없으니 모두가 자비요, 지혜요, 바로 사랑인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부처님 법이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경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으로 결집해 놓은 것은 부처님께서 그때 시절의 방편을 써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방편은 지금 시대의 방편하고는 또 차이가 납니다.

드리듯이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 일임해 놓고 사세요. 잘되는 것도 거기 못되는 것도 거긴데, 잘되는 것도 금방 돌아가고 못되는 것도 금방 돌아가니 어디 불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공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잘됐으면 잘된 대로 감사하고, 안됐으면 안된 대로 거기서 또 잘돼서 금방 돌아가니 그것도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한 것뿐이라. 그런데 뭐가, 뭐가 잘못돼서 믿지 못하고...,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엇저저께 스님네들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제을, 이런 거 생각해 본 게 없다." "어째서 그러십니까?" "나 하나 죽으면 아무 것도 불지 않는다." 죽는다는 건 아주 극적인 얘기입니다. 죽었다 할 때는 아무것도 불지 않는 겁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냥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요. 무섭고 두려운 거, 누가 뜯어 먹을까 봐, 무슨 귀신이 나올까 봐, 내가 뭐 병이 들까 봐, 이런 것은 다 나 하나가 죽으면 불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로 믿는데 어찌 그렇게 방황하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하늘이 무너져서 내가 가루가 돼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는 것도 걸리지 않을 때, 내 몸이 죽는 것도 걸리지 않을 때 아무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만치 그냥 죽고 사는 것도 다, 거기를 믿어 버리는데 뭐가 거기 불습니까? 아픈 거, 뭐 이런 것이 어디에 불습니까? 그런데 야유하듯이 말입니다. 내가 그냥 발발발발 떨고 하는 데는 착착 더 불어요. 그런데 '히, 그런 거 불거나 말거나.' 이럴 때는 심심해서 안 불어요! 심심한데 그게 불습니까? 재미있어야 불지. 하하하... 아등바등하고 그래야 불는 건데, 그저 그러거나 말거나 이따 죽으나 더 이따 죽으나 그냥, 그저 너나 나나 뭐, 다 그냥... '나'가 죽는데 뭐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불어 봤자 심심해요. 그리고 여기 불어 봤자 집니다. 돌이 아니라는 걸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성가시게 할 수도 없고 나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심국이 웃고 말아 버리는 거죠. (다음 호에 계속)

지금 여러분이 각본대로 받고 있고 또 부딪치고 있는 것도 인간 자체, 생명의 근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한테 항상, 그저 우리가 수행할 때는 악을 버리고 선으로써, 또 우리가 마음을 깨달을 땐 악과 선을 다 놓고 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 조막대기만한 나라에서 산다고 하시겠지만 이게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한자리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자리가 조그맣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몸뚱이가 작다고 인간이 아닌 것도 아니고 몸뚱이가 크다고 인간이라는 법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마음의 도리, 한마음을 진짜로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 '주인공!' 하면 이름은 주인공이지만 뜻으로 벌써 삼천대천 세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마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상, 부처, 중생 모두, 풀잎 하나, 애벌레 하나 버리지 않고 한마음으로 뭉쳐서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는 이 평등 진리의 근본이 바로 주인공이라고 진짜로 믿을 때에 바로 주인공 속에 일체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 배를 해도 만 배가 되는 겁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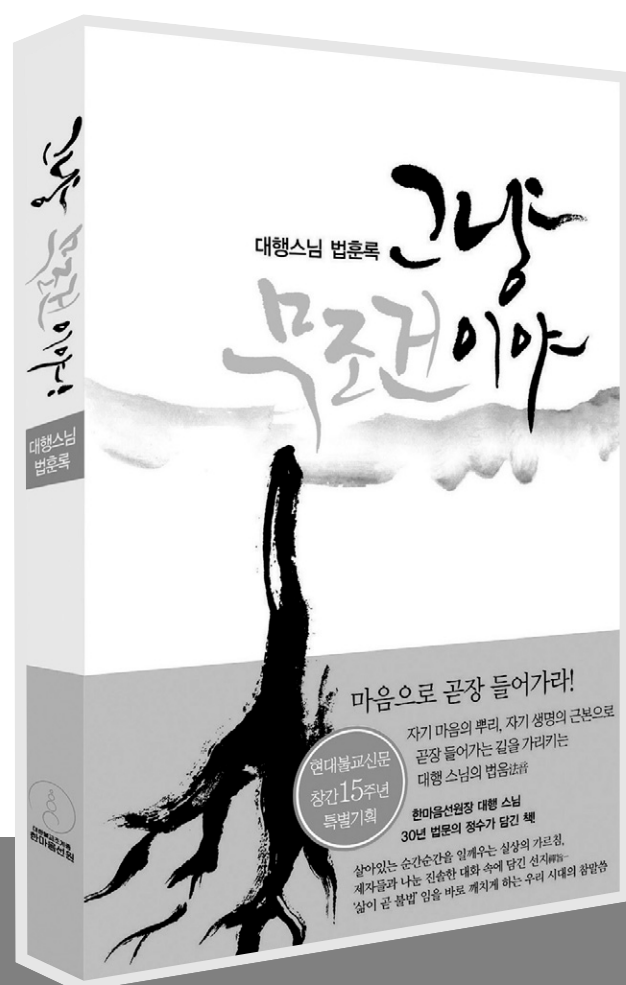
'내가 번초에 가더라도 부처가 거기 있는 거고...', 허허허, 더럽고 깨끗하고가 어딴? 내가 지금 용변 보러 가면 거기 부처가 용변을 보고 있는 거지! 속으로 이러면서도 어른의 말씀을 거역 안 하고, 또 형님의 말씀을 거역 안 하고 깍듯이 받들었죠. 그쪽에서 모르든지 알든지 나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나 공부하는 데는 그 사람이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고 그게 상관 없어요. 또 그 사람이 깨끗고 안 깨끗고나 나하곤 상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 나왔으니까 오직 전체와 함께 무(無)의 법, 유(有)의 법을 같이 동등하게 해 나가도록 하는 데 전념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서 자비의 행, 참선의 행을 하며 그대로 행선으로써 나갈 수 있도록 자기의 마음을 굳혀야 하는 거지 남이 잘하든 우리가 무지하든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의 뜻을 깍듯이 받들어 모시는 그 마음이 그토록 진하죠.

왜냐하면 나를 다지기 위해서 저 몸뚱이를

나는 경전은 못 봤습니다마는, 부처님께서 당시엔 '내가 이 방편을 쓰는 거는 현시점에서 돌아가는 대로 맞춰서 쓴 것이니, 이다음에 세상이 바뀌어서 돌아갈 때는 다시금 그 시대에 맞게끔 방편을 바꿔 써도 좋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의 그 뜻, 깨달아서 말씀하신 자유인의 그 뜻이 너무도 철두철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그 분이 만약에 똥을 누었다면 똥을 안 씻을 이치가 없어요. 똥을 누는 대로 그분이 똥을 씻고 일어나시라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습니다. 믿고!

내가 그전에 할 말이 없어서,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니, 날더러 무슨 말을 하라고 그러는 거야? 아, 자기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게 그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나면 얘기가 나오고 만나지 않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참 묘하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말씀해

*위 법문은 1988년 7월 10일 국내지원위원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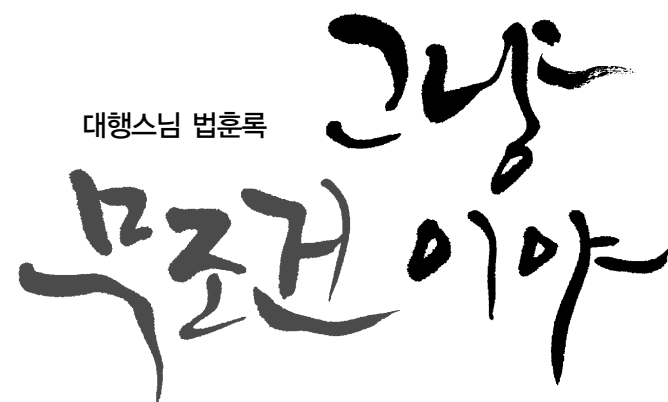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語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돌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
농림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문 중에서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삼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